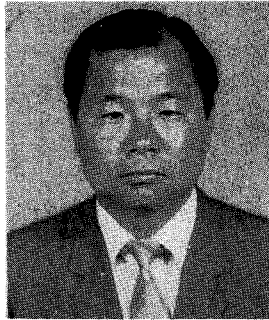


국제환경보호기술박람회를 다녀와서

1

1962년초부터 1975년말까지 독일의 공업지역 투루지방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제작 분야에 근무하여 조금이나마 독일의 선진 기술을 터득한 경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전국의 상하수 처리장에 고점도 이송용 MONO PUMP를 자체개발 납품하는 기술인의 입장에서 선진 공업 기술이 집약된 환경보호 기술 박람회를 꼭 참관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분야에 어떤 새로운 기계하나라도 더 개발하여 보탬이 되고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5월 23일 김포공항을 출국하였다.

20년전에는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소련 영공 통과권이 없어 미국령 앵커리지를 돌아 북극권 지구의 중심을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20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소련 영공을 통과하여 파리까지 12시간, 거기에서 세계최첨단의 항공기인 보잉 747을 처음 타보고 해외생활 10년동안 비행기를 100여회탑승해 본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니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나라 국력이 새삼 가슴뿌듯함을 비



李相原
 ((株)대봉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느꼈다. 암스텔담, 로마, 뒤셀도르프, 파리 어느 도시에 가셔도 당당한 마음 가짐으로 여행을 할수 있어 1970년대 발똥꿈치를 들고 조심스레 해외 생활하던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가벼운 마음 가짐으로 박람회를 참관 할 수 있었다.

2. ENVITEC 역사

1992년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독일의 심장부 투루지방의 최대 상공업도시 뒤셀도르프에서 제7차 국제환경보호 기술 무역 박람회가 전세계 환

경인들의 관심속에 성대히 개막 되었다. 약칭하여 “ENVITEC 92”라고 하며, 1973년 제1회는 독일을 주축으로한 전 유럽 3백60개사가 출품하였고, 관람객 수는 2만여명에 달했다. 그후 3년마다 개최되어 20여년이 지난 금번 7회에는 세계 8백52개사가 참가하였고, 전시장 면적은 38,500m²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였으며, 3일간 꼬박 돌아 보아도 부족할만큼 많은 환경보호 기술 및 기계가 전시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 ①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 ② 수질 및 하수 처리
- ③ 제어 계측 및 분석 시스템
- ④ 대기 정화 및 소음 방지

그외에 “ENVITEC 심포지엄”이라하여

- 자원 절약적 기술
- 환경 보호측면의 발전 기획
- 인간의 생활 공간을 효율적이면서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술체계
-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계 정상급 전문가들의 강연도 독일어, 영어, 불어로 동시 통역되어 성대한 행사를 치루고 있었다.

이제 전시된 기자재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3호실, 4호실)

종이 box와 각종 종이류를 잘게 썰어서 압축시켜 제지회사로 가서 재생하겠금하는 기계 장치들, 나무토막을 잘게 썬 분쇄기에 유리병들을 분쇄하여 원래의 색깔대로 고르는 기계, 대형 건심드라이어를 돌려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계와 공정 또는 기계와 그림을 곁들인 대형 PLANT 쓰레기를 압축하여 부피를 작게하여 운반하기 쉽게하는 압축기계 등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등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② 수질 및 하수 처리(4호실, 5호실)

가장 많이 전시된 품목들은 각종 특수 PUMP류 6개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효도 이송 MONO PUMP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과 제작된 형태가 거의 같았다.

각종 약품 이송 정량 펌프, 고무쥬브를 이용한 쥬브 펌프, 펌프카 시스템을 이용한 탈수된 케익 이송 장치, 우리나라 벨트 프레스 규모보다 전장이 배로 큰 벨트 프레스, 신형 수지판을 이용한 휠타 프레스 그림과 축소 모형으로 수질개선 방법 여과 방법등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흔적이 엿보였다.

“

환경보전이란,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과학이 포괄적으로 환경보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ENVITEC 92와 같은 박람회를 통하여 국제적인 과학 및 기술이전 문제 등을 논의할 장을 열어야 하며, 박람회를 통하여 환경보전 문제에 관한 정보를 풍성하게 제공하겠다.

”

하수처리 분야에서 특이한 점은, 최대의 시설로 완벽한 공정을 거쳐 고기가 살수 있는 물을 흘려 보낸다는 설비와 그 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과연 우리나라 업체의 폐수 처리장과 하수 처리장의 최종 방류수에 고기를 집어 넣으면 몇 시간이나 살수 있을런지, 그 많은 고가의 설비를 하여 물을 깨끗이 하려면 기업이 살아 남을수 있을런지. 필자는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폐수를 처리하는 OB맥주의 구미 공장 폐수 처리장의 시설을 연상하였다. 오염된 폐수를 깨끗한 물로 만드는데는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야 된다는 씩씩한 생각을 하면서.....

③ 제어 계측 및 분석 시스템(6호실, 7호실)

한마디로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원격 제어, 자동계측, 정확한 분석 장치 기기등

최소 가격이 천만원대에서 삼천만원까지의 고가장비의 경쟁장이었다.

④ 대기 정화 및 소음 장치(8호실, 9호실)

각종 집진 설비 및 흡인기계, 필타 종류 싸일크로 시스템, 가장 반값고 호뭇했던 점은 우리나라의 집진기를 출품한 새론 집진기의 젊은 영업과장의 활약이었다. 작은 스페이스 1부스를 차지하였으나, 세계 최대 메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설명과 수주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그 용기와 패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4

유럽은 이제 전세계를 향하여 과감하게 자기 자신들을 활짝 개방하면서 와서 보고 듣고

상담하여 “좋으면 사가세요”하고 있다.

그러나 값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가의 제품들이었다.

박람회 기획이사 다탘마 아을리 히 박사의 연설문에서.

“환경보전이란,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과학이 포괄적으로 환경 보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ENVITEC 92와 같은 박람회를 통하여 국제적인 과학 및 기술이전 문제 등을 논의할 장을 열어야 하며, 환경 보전 문제에 유전 공학,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스템, 유럽 공동체의 환경 관련 공동 임금, 신흥 공업국의 환경 보전 문제등을 ENVITEC92라는 박람회를 통하여 환경 보전 문제에 관한 정보를 풍성하게 제공하겠다고” 공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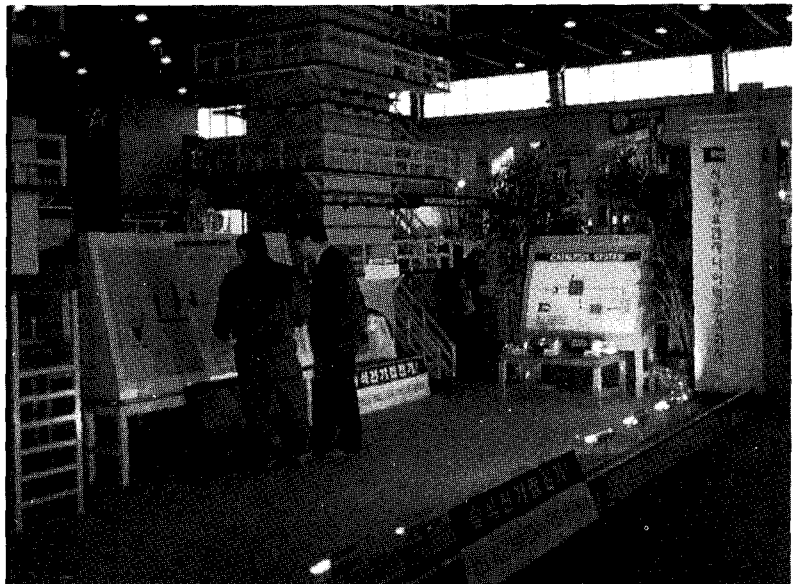
이러한 세계적 박람회에 우리나라의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대거 관람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선인의 말을 되새겨 본다.

독일은 20여년전 내가 근무할때보다 더 깨끗하였고, 젊은 이들은 더 발랄하게 거리를 누비고있었고 잘 다듬어진 정원과 자연의 숲, 거기다 군데군데 연못보다는 크고 호수보다는 작은 숲과 호수가 공존하는 유럽 최대 공업 지대, 매연과 먼지와 소음이 없는 공업 지대를

그들은 서로 노력하여 만들고 있었다. 한가지 분명히 짚고넘어갈 것은 우리나라는 물만 흘렀다 하면 금방 죽음의 늪으로 변하는데, 그들은 물이 있는 곳엔 수초와 고기, 오리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풍경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 되는데 아닌만큼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환경 보전은 쉬운것이 아님을 국민 각자가 알아야 한다.

또 한가지 박람회 참관중 느낀것은 카타로그를 넣을 가방을 무명천으로 만들어 제공하여 써지 않는 비닐팩보다 다시 빨아서 재활용하거나 또는 버려도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될수 있는 천연 섬유를 사용하는 그들의 생활 모습이었다. 오늘날

독일의 자연의 물이 오염되지 않고 숲속의 호수가 온전하게 살아 있는 것은 이사사람들은 옛날 몇백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생활하수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하여 하수구는 지하 6m이상 만들어 하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길거리에는 세가지 쓰레기통이 각각 색깔이 다른 모습으로 나란히 있어 병종류, 깡통종류, 마른 쓰레기, 젖은 쓰레기등을 철저히 분리 수거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이렇듯 국가 시책과 환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우리도 하루 속히 배우고 실천하여야 우리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과 더불어 보존할수 있으리라... ◀



버리는데 연습없고 우리국토 예비없다